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국정원 신입 요원들의 좌충우돌 로맨틱 코미디

MBC '7급 공무원' 내일 첫 방영

모든 것이 베일에 싸인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MBC가 '보고싶다' 후속으로 23일 처음 방송하는 새 수목드라마 '7급 공무원'은 방송국 입사를 준비하다 얼떨결에 국정원에 합격한 빈궁한 여자 요원 김서원(최강희 분)과 국정원에서 쫓겨나고서 '블랙 요원'으로 활약하는 한길로(주원)가 그리는 로맨틱 코미디다.



김수현, 최강희, 김상협PD, 주원, 장영남, 황찬성, 김민서(왼쪽부터)

작품의 원작인 영화 '7급 공무원'의 천성일 작가가 다시 한번 극본을 썼다. 21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김상협 PD는 "'7급 공무원'은 국정원을 무대화 한 신인들의 좌충우돌 성장기"라며 "일, 사랑, 웃음,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큐멘터리 PD를 꿈꾸다 입사 시험 양식이 비슷한 국정원에 끈금없이 합격한 김서원은 최강희가 맡았다. 그는 "방송국 시험을 보려고 국정원을 퇴사했지만, 언론사 시험에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 이 회사에 취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앞세우고 한길로가 들어간 회사에 위장 취업한다. 물론, 길로가 평범한 직원이 아닌 국정원 '블랙 요원'인지는 모른다. 최강희는 "첫 방송이 코야이라 원래 행복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극 중 호흡을 맞추는 주원을 가리켜 "'비주류 쇼크'를 받았다"며 "주원 씨는 처

음 보니 화면보다 낫더라. 가름하고, 너무 잘 생겼다"고 극찬했다. '각시탈'의 히어로 주원은 극 중 또 다른 국정원 요원 한길로로 변신한다. 우연히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서원과의 악연은 나란히 합격된 국정원으로 이어져, 그와 육신각신 다투면서도 사랑을 만들어간다. 주원은 "촬영 전에 왈츠, 사격 등 극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틈날 때마다 배웠다"며 "많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배웠던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국정원 요원으로 변신한 과정을 소개했다. 지난해 시트콤 '스텐바이'에서 예능국 PD를 맡은 김수현은 이번에는 국정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산업 스파이로 변신한다. 그는 "'스텐바이'에서는 코믹한 연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대비되는 거라 긴장된다"며 "이분들(최강희·주원)에 맞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럼 2PM의 황찬성은 '7급 공무원'을 통해 첫 정극 연기에 도전한다. 특전사 출신으

로 특별채용된 국정원 요원 공도하가 그가 맡은 역할. 그는 "제가 아이돌이라서 더 신경 쓰고 잘 하다가보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 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준비도 열심히 했다"고 각오를 전했다. '해를 품은 달', '성균관 스텐달'의 김민서는 엘리트 국정원 요원 신신미로 변신한다. 그는 사격 장면 촬영 도중 탄피가 얼굴에 튀는 바람에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사격 장면을 촬영했는데, 고글이 여자에게 좀 크다 보니 턱 탄피가 고글 안으로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화 '7급 공무원'에 출연한 장영남은 드라마에도 출연하게 됐다. 그가 맡은 역할은 국정원 요원 장영준. 그는 "영화에서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유부녀였는데, 이번에는 결혼을 빨리하고 싶어하는 노처녀"라고 차이를 소개했다. 방송은 매주 수·목요일 밤 9시55분. /연습뉴스

EB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program listings for January 22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Horoscope section for January 22nd (1월 22일)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ecast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Korean to English (I didn't recognize your voice), 2. Korean to Chinese (白骨難忘), 3. Chinese to English (猫儿腻), 4. English to Chinese (오하유우 니혼고).